

주니어RHK 독서 활동지 <리시의 다이어리>

현직 초등 교사 집필 · 교사 및 양육자를 위한 설명서 수록



리시의 다이어리

엘런 텔랑어 글 | 일라리아 차넬라토 그림 | 김영진 옮김 | 36쪽 | 13,000원 | ISBN 978-89-255-7980-1 (77850) | 초등 1-2학년 대상

교과 연계 (해당 학년·과목·단원에 해당되지 않아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2-1 통합교과(여름) 1. 이런 집 저런 집

2-2 국어 2. 인상 깊었던 일을 써요

3-2 국어 3. 자신의 경험을 글로 써요

5-1 국어 4. 글쓰기의 과정

5-2 국어 4. 겪은 일을 써요

현직 초등 교사가 들려주는 이야기

학창 시절 일기 쓰기는 가장 하기 싫은 과제 중 하나였습니다. 지금의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죠. 방학 내내 미루어 두었던 일기를 개학 전날 한꺼번에 몰아 쓰거나, 모든 일기가 “참 재미있었다.”로 끝나는 경험이 저만의 경험은 아닐 겁니다. 일기의 중요성을 깨달은 것은 어른이 되고 한참이 지나서입니다. 이렇게 역으로라도 남겨 두었던 기록들이 추억이 되어 일기장을 펼칠 때마다 되살아나는 것을 보며 ‘기억’이라는 의미로서 일기를 다시 보게 되었지요. 매일의 생각, 아이디어, 경험을 기록하는 것이 나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느끼며 ‘기록’이라는 측면에서 일기의 중요성도 깨닫게 되었고요.

아이들이 왜 일기 쓰기를 싫어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도 ‘누가 시켜서 하는 것’, ‘누군가에게 보여 줘야 하는 것’이라는 압박감이 크게 영향을 주기 때문 아닐까요? 싫은 마음을 극복하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처음 일기를 어떻게 접하는지가 중요하지요. 그래서 **일기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려 주고, 첫 일기장을 설레는 마음으로 펼칠 수 있게 해 주는 이 그림책이 더더욱 반갑습니다.** 주인공 리시는 할머니가 들려주는 옛 일기 속 이야기를 들으며 일기를 처음 마주하게 됩니다. 일기 속 주인공이 스케이트를 타러 갔다가 얼음에 갇힌 오리를 구해 준 일, 엄마를 위해 들판에서 꺾어 온 꽃을 꽃으려다 꽃병을 깨뜨린 일, 깨진 꽃병 조각을 붙여 놓긴 했지만 어쩐지 마음이 편하지 않았던 일까지, 일기 속 이야기를 흥미롭게 들으며 리시는 일기에 푹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일기를 쓰기 시작하지요. 이 책에서처럼 일기를 처음 마주하고 쓰기까지 설렘 가득한 과정을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게 해 준다면 아이들도 일기를 그저 숙제로만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리시의 다이어리》는 일기란 나를 위한 기록이자 나와와 대화, 추억을 쌓는 일임을 알려 주고 설레는 마음으로 첫 일기를 마주하게 하는 그림책입니다.** 일기란 어쩔 수 없이 칸을 채우기 위해 썼던 의미 없는 끄적임이 아니라는 걸 알려 주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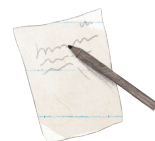
일기 쓰기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에 ‘우리 아이가 일기 좀 썼으면…….’ 하고 고민하는 어른들에게도 그림책 속 할머니의 방식은 좋은 모델이 되어 줍니다. 할머니처럼 슬쩍 나의 이야기, 나의 일기 이야기를 들려주며 아이에게 일기 쓰기를 권해 보면 어떨까요? 그럼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신나서 일기 쓰기를 시작하는 아이를 만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마음을 담아 독서 활동지를 만들었습니다. 이 책과 독서 활동지를 통해 아이들이 일기와와의 첫 만남을 잘 맺을 수 있기를, 혹시라도 이미 잘못된 만남을 한 아이가 있다면 다시 새롭게 일기 쓰기를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최유라(청주 청원초등학교 교사)

초등학교 교실에서 아이들과 책을 만드는 선생님입니다. 아이들과 오랫동안 책으로 수업하고 책을 만든 과정과 결과를 SNS와 강의를 통해 선생님과 양육자에 공유하며 교실이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따뜻해지기를 바랍니다.

- 학교 밖 전문적 학습 공동체 <참쌤스쿨>, 그림책 연구회 <다독다독>
- 충북, 충남교육청 초등1급 정교사 자격 연수 포함 전국 교육청 ‘그림책 활용 교육’ 연수 강사



미션 1: 표지를 살펴봐요

책을 읽기 전 책의 표지를 함께 살펴보며 질문에 답해 봅시다.



① 책의 제목을 살펴봅시다.

다이어리는 '일기장'을 의미합니다.

- 일기를 써 본 적이 있나요?
- 일기 하면 무엇이 떠오르는지 모두 말해 봅시다.

② 표지 속 주인공을 살펴봅시다.

- 무엇을 들고 있나요?
- 표정은 어떤가요?
- 어디를 가고 있는 걸까요?

제목과 그림을 보며 생각한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상상하여 써 봅시다.

미션을 완료했다면 이제 책을 펼쳐 봅시다. 여러분이 생각한 답이 맞는지 확인하며 읽어 보세요.

미션 2 : 나의 경험 떠올리기



할머니의 생일날 리시는 생일 선물을 들고 할머니 집에 갔습니다.
책을 읽으며 리시의 이야기 속 빈칸을 채운 뒤 그와 비슷한
여러분의 경험을 떠올려 써 봅시다.

리시의 이야기

- 누구의 생일이었나요?

할머니의 생일이었어요.

누구와 함께 만났나요?

()와 함께 만났어요.

- 어떤 선물을 준비했나요?

리시가 오자 할머니는 어떻게 반응했나요?

- 일기가 무엇인지 묻는 리시에게 할머니는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었나요?

- 할머니의 이야기에 리시는 어떤 기분이 들었나요?

나의 이야기

- 누구의 생일이었나요?

- 누구와 함께 만났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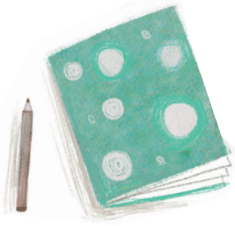
- 어떤 선물을 준비했나요?

나를 보자 ()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 생일 파티를 할 때, 또는 끝난 뒤에 또 어떤 일이 있었나요?

- 어떤 기분이 들었나요?

미션 3 : 일기 쓰기 (1)



리시가 일기장에 일기를 쓰기 시작하며 책은 끝이 납니다.
리시는 일기장에 뭐라고 썼을까요? 상상해서 써 봅시다. 그림을 그려도 좋아요.

나의 첫 일기장에게

오늘은.....

미션 4 : 일기 쓰기 (2)



이번에는 나의 일기를 써 봅시다. 꼭 오늘 있었던 일이나 생각한 것, 특별한 사건이 아니어도 좋아요. 지금 드는 생각이나 감정, 떠오르는 상상 등 무엇이든 여러분이 남기고 싶은 것을 자유롭게 써 봅시다.

날짜를 남기면 언제 쓴 일기인지 알 수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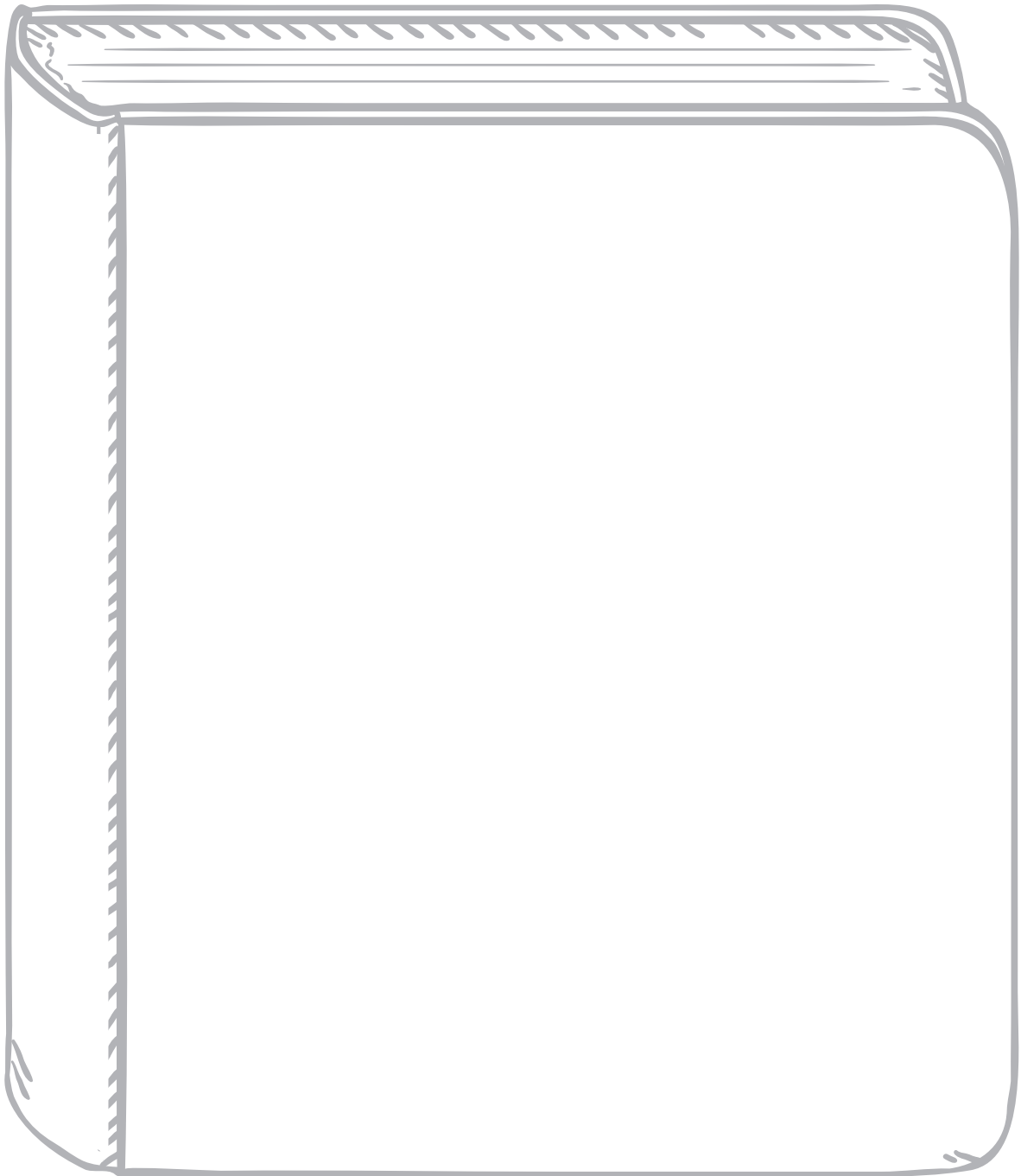
____년 ____월 ____일 ____요일

나의 일기장에게

미션 5 : 나만의 다이어리 표지 꾸미기



리시는 겉표지에 꽃과 하얀 고니와 무당벌레가 그려진 아주 근사한 일기장을 골랐어요.
여러분은 어떤 일기장을 가지고 싶나요? 원하는 대로 표지를 꾸며 봅시다.
일기장에 이름을 지어 줘도 좋아요.



함께 미션 : 누구의 일기일까?



처음 할머니의 일기 속 이야기를 들었을 때 리시는 누구의 일기인지 몰랐어요. 이번에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쓴 일기를 읽고 누구의 것인지 맞힐 차례예요. 함께 맞히기 미션을 할 친구나 가족이 필요해요.

① 가족 또는 친구의 일기 맞히기

일기를 보면 그 사람에 관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기 내용을 듣고 누구의 일기인지 맞혀 봅시다.

1. 가족(또는 친구) 중에서 사회자를 1명 뽑습니다. 1명씩 돌아가면서 사회를 봐도 좋아요.

2. 가족(또는 친구)와 여러분이 각각 예전에 쓴 일기 중 하나를 골라 펼쳐 놓습니다.

오늘(또는 평소) 그 사람이 무엇을 했는지, 표정이 어땠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주의 깊게 보았다면 금방 맞힐 수 있을 거예요.

3. 예전에 썼던 일기를 보여 줄 수 없다면 새롭게 오늘의 일기를 씁니다.

4. 사회자가 펼쳐 놓은 일기 가운데 하나를 골라 큰 소리로 읽습니다.

5. 내용을 잘 듣고 누구의 일기인지 손을 들어 먼저 맞는 사람이 승리!

② 가족 또는 친구의 일기 대신 써 보기

가족 또는 친구 1명과 짝을 지어 서로의 하루를 관찰하고 일기를 바꿔 써 봅시다. 그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의 하루 중 기억하고 싶은 내용을 일기로 써 보는 거예요.

_____의 일기

다 쓴 일기는 서로 바꾸어 읽으며 느낀 점, 공감하는 부분, 사실과 다른 부분 등을 이야기 나누어 봅시다.



교육자와 양육자를 위한 미션 활동 안내서

6가지 미션 활동지를 준비했습니다. 단계별 미션을 해결하는 동안 아이들은 저절로 책 전체를 다 읽을 수 있으며 가족과의 소통과 교감, 기록하는 일의 소중함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미션 활동에 앞서

아이에게 책을 소개해 주세요.

일기 쓰는 것 좋아하시나요? 아이들에게 일기 쓰기는 참 하기 싫은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일기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는 일기에 대한 첫 인상에 달려 있습니다. 《리시의 다이어리》는 일기를 처음 만날 때, 혹은 일기가 이미 싫은 아이에게 일기가 얼마나 따뜻하고 다정한지, 또 얼마나 중요한지 자연스럽게 알려 줍니다. 일기 쓰기가 습관이 된다면 기억과 기록은 차곡차곡 쌓여 아이들의 자산이 되어 줄 것입니다.

미션 활동에 앞서

이럴 때 읽어 보세요.

- 가족과 있었던 따뜻한 경험에 관해 아이와 이야기 나누고 싶을 때
- 일기를 아직 모르는 아이에게 일기 쓰기를 재미있게 만나도록 돕고 싶을 때
- 일기가 싫은 아이에게 일기 쓰기의 의미를 알려 주어 일기를 쓰고 싶은 마음을 자연스럽게 심어 주고 싶을 때
- 아이가 학교에서 일기 쓰기를 시작할 때

책을 읽기 전에

미션 1 : 표지를 살펴봐요

책을 만나기 전 표지를 살펴보고 내용을 생각해 보고 상상해 보는 활동입니다.

먼저 책의 제목을 살펴보고 '일기' 하면 떠오르는 것을 이야기해 봅시다. 일기에 관해 아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엿볼 수 있겠지요.

표지 속 주인공을 살펴본 뒤에는 제목과 연관시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상상해 보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아이가 그림, 제목과 이야기를 어떻게 연결시키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미션 2 : 나의 경험 떠올리기

본격적으로 일기 쓰기를 시작하기 전에 《리시의 다이어리》 속 주인공의 이야기를 통해 경험한 것을 글로 어떻게 정리하는지 연습해 보는 활동입니다.

먼저 주인공 리시의 이야기를 정리한 뒤 같은 방법으로 비슷한 나의 경험을 정리해 봅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아이들은 일기란 결국 내가 경험한 것을 쓰는 것임을 알게 되고, 일기의 글감을 모으고 정리하는 방법도 익힐 수 있을 거예요.

책을 읽으면서

미션 3 : 일기 쓰기 (1)

앞에서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일기 쓰기 연습을 해 보는 활동입니다.

먼저 책의 주인공인 리시의 이야기를 일기로 바꿔 봅시다. 미션 2에서 정리한 내용을 되짚어 보며 자신이 리시였다면 첫 일기장에 어떤 이야기를 담을지 직접 써 보도록 합니다. 일어난 사건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주인공의 입장이 되어 리시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생각해 보도록 도와주세요.

책을 읽고 나서

미션 4 : 일기 쓰기 (2)

이제 아이들이 자신의 일기를 써 볼 차례입니다. 오늘 있었던 일이나 특별한 사건을 써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 꼭 알려 주세요. 일기는 지금 내가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 생각하고 있는 것, 느끼는 감정, 자유로운 상상 등 무엇이든 담고 싶은 내용을 쓰는 것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쓸 수 있게 해 주시고, 꼭 일기의 양식에 맞지 않더라도 쓰는 행위 자체를 응원해 주세요.

책을 읽고 나서

미션 5 : 나만의 다이어리 표지 꾸미기

리시는 할머니에게 꽃과 하얀 고니, 무당벌레가 그려진 일기장을 선물 받고 무척 기뻐합니다. 이처럼 일기에 애착을 가질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나만의 일기장을 갖는 것입니다. 자신의 일기장 표지는 어떤 모습이면 좋을지 생각하고 꾸며 보도록 합니다. 색도 정하고, 무늬를 그려 넣어도 좋아요. 이름을 정해서 써도 좋겠죠.

표지 꾸미기가 끝나면 그와 가장 비슷한 실제 일기장을 구입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비슷한 일기장을 사서 원하는 대로 꾸미도록 도와주면 일기 쓰기를 더 즐기게 될 거예요.

책을 읽고 나서

함께 미션 : 누구의 일기일까?

가족 또는 친구와 여럿이서 함께 하는 미션입니다. 참여한 사람들의 일기를 하나씩 모아 놓고 사회자가 하나를 골라 읽으면 나머지 사람들이 누구의 일기인지 맞춥니다. 다른 사람을 관찰한 뒤 그 사람이 되어 대신 일기를 써 보는 활동도 마련했습니다.

함께 미션을 통해 아이들은 서로에게 관심을 얼마나 가지느냐에 따라 서로를 더 많이 알고 이해할 수 있음을 깨닫고, 일기 쓰기를 더 재미있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책을 읽고 나서

아이가 자기 자신에 대해 깊이 탐구하길 바란다면
이 책도 함께 읽어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책》 주니어RHK

책을 읽고 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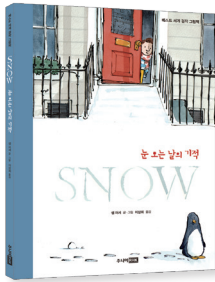
아이와 할아버지의 사랑을 이야기 나누고 싶다면
이 책도 함께 읽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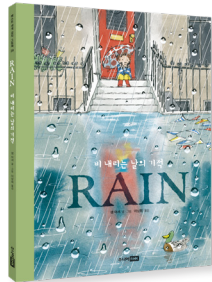
《모치모치 나무》 주니어RHK

책을 읽고 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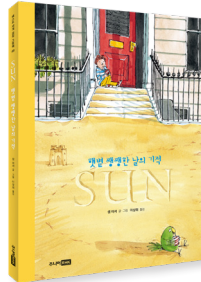
할아버지와 손자의 상상과 모험을 그린 책을 보여 주고 싶다면 이 시리즈도 함께 읽어 보세요!



《SNOW 눈 오는 날의 기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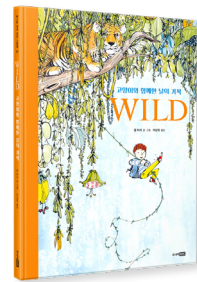
《RAIN 비 내리는 날의 기적》



《SUN 햇볕 쨍쨍한 날의 기적》



《STORM 폭풍우 치는 날의 기적》



《WILD 고양이와 함께한 날의 기적》